

집단극화 연구의 개관 : 1961-1990

성한기

효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집단상호작용 후의 집단반응이나 평균이 개인들의 최초 반응 평균보다 동일한 방향으로 더 극단화되는 집단극화현상을 다룬 30년간의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집단이 개인보다 더 모험적이라는 모험이행으로 알려졌으나, 다양한 과제와 상황에 걸쳐 현상의 일반성이 확립됨으로써 개념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많은 이론들도 명멸했는데, 현재는 정보적 사회 영향을 강조하는 설득주의이론과 규범적 사회 영향에 초점을 두는 사회비교이론이 가장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사회적 정체 역활을 주장하면서 두 이론의 개념적 통합을 시도한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극화에 관한 연구경향의 역사적 흐름과 현황을 조명해보고, 현상의 일반성과 대표적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장차의 연구방향과 과제를 검토했다.

집단과 개인을 비교하는 문제는 과제수행(Triplett, 1898)과 문제해결(Osborn, 1957) 등의 주제를 통해서 사회심리학의 초창기부터 다루어져 온 관심사이다.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 분야는 집단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관심이 상대적으로 퇴조한 1960-70년대에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집단의사결정과 개인의사결정의 차이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차원은 의사결정의 모험성이다. 동조 연구들의 영향으로 1960년 경까지의 지배적 견해는 집단의 의견은 구성원들의 의견의 평균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집단상호작용 전후의 개인들의 모험성향을 포함한 의견 평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장면에서는 집단이 개인보다 덜 모험적 선택을 한다는 결과도 있었다(Whyte, 1956). 그러나 Stoner(1961)는 당시의 이러한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로서 집단의사결정

이 개인의사결정보다 더 모험적임을 보고하였다. 모험이행(risky shift)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의 전환점이 되어 수 많은 연구를 자극하였다. 그 결과, 모험이행현상은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의 한가지 하위 현상이 밝혀지면서 개념이 확장되고 명칭도 적절하게 바뀌어 현재는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또는 선택이행(choice shift)으로 불리고 있다. Myers와 Lamm(1976)은 집단극화를 “집단을 이룬 뒤의 개인들의 반응 평균은 집단을 이루기 전의 반응 평균과 동일한 방향에서 더 극단적으로 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간단히 말해서, 집단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최초 경향을 더 강화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극화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개념 자체 및 이론들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교과서와 기타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설명상의 오류와 불일치를 교정하고, 나아가서 집단 연구

가 근래에 다시 활성화된 추세(Levine & Moreland, 1990)와 더불어 새로운 연구들을 자극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본 개관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Sheppard와 Dacis(1982)는 사회심리학에서 지배적으로 적용되는 분석 수준이 집단에서부터 개인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집단 고유의 현상들마저 개인과정에 초점을 두게되고 집단 응집성은 대인매력으로, 집단내 갈등과 협동은 최소의 사회적 장면에서의 경쟁과 협동으로, 그리고 집단내의 대인영향과정은 다수에 대한 개인의 동조 연구로 변화되었음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의 문제점은 대체로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원래의 물음인 집단과정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데 있다. 개인과정의 분석에서 나온 설명은 집단 장면에서 재확인되지 않으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의 적용가능성이 불확실한데, 그들은 집단극화의 연구가 이의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수준의 분석이 집단과정의 이해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덕웅(1990)도 우려했듯이 소집단 행동연구들이 집단수준과 개인수준간의 상호관련성이 결여된 형태로 이루어짐을 경계해야 하겠다. Turner, Hogg, Oakes, Reicher 및 Wetherell(1987)은 집단이 개인의 집합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실체이므로 집단현상은 전적으로 집단수준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단극화를 비롯한 모든 집단현상을 집단내 및 집단간 관계로 재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극화 연구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집단과정의 이해에 있어서 분석수준의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다. 아울러 호기심을 끄는 결과를 보고했던 최초 연구의 질차망을 후속 연구들이 지나치게 답습하는 등으로 초래된 성급한 결론과 편파된 관점이 어떻게 적절한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수정되고 대치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한다(Cartwright, 1973 ; Miller, 1978 ; Myers, 1988)

본고에서는 우선 집단극화에 관한 30년(1961-1990)에 걸친 연구들을 역사적으로 개관하여 개념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각각 초기와 근래의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현상의 일반성에 관한 연구 성과와 대표적인 설명 이론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비판적으로 상호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해 본다.

역사적 개관 및 현황

개념의 변천

집단극화 연구의 효시가 된 Stoner(1961)의 연구는 선택딜레마 질문지(Choice Dilemmas Questionnaire : CDQ)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개인과 집단의 모험성향을 비교하였다. CDQ는 Wallach와 Kogan(1959)이 모험행동의 개인차 연구에 처음 사용했던 것으로 12개의 선택딜레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딜레마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힐 수 있는 의사결정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피험자들의 과제는 딜레마에 봉착한 가공 인물에게 얼마나 모험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조인하는 것이었다. 각 딜레마의 반분신뢰도는 .53~80으로 보고되고 있으며(Wallach & Kogan, 1961), 한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0세의 기혼 물리학자인 L씨는 한 우수 대학의 실험실로부터 5년간 근무를 위촉받았다. 그가 앞으로 5년 동안 연구해야 할 과제는 만일 해결된다면 그 분야의 기보적인 과학적 쟁점을 해명함과 동시에 큰 학문적 명예를 얻게 되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해결을 못하면 5년간 헛수고만 한 셈이 되고, 장차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의 동료들이 그랬듯이 해결은 쉬우나 과학적 중요성은 적은 문제들을 다루는 일련의 단기적 연구과제에 종사할 수도 있다.

당신이 L씨에게 조언을 준다고 하자. 아래에 어려운 연구 문제가 5년 이내에 해결될 확률이 제시되어 있는데, 확률이 최하 어느 정도이면 당신은 L씨가 어려운 연구 과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 어려운 과제가 5년 이내에 해결될 확률이 1/10 이다.
- 어려운 과제가 5년 이내에 해결될 확률이 3/10 이다.
- 어려운 과제가 5년 이내에 해결될 확률이 5/10 이다.
- 어려운 과제가 5년 이내에 해결될 확률이 7/10 이다.
- 어려운 과제가 5년 이내에 해결될 확률이 9/10 이다.

- 확률에 상관없이 L씨가 어려운 과제를 택해서 안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체크하시오.

Stoner는 피보험자들에게 12개의 딜레마 각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타내도록 한 후, 6인 집단을 구성하여 각 딜레마에 대해 합의된 집단의견이 나올 때까지 토의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개인적 의견을 다시 물었다. 그리고 통제 집단의 피험자들로부터는 집단토의없이 2회에 걸친 개인적 반응만 얻었다. 결과는 집단반응 및 토의후의 개인반응 평균은 토의전의 개인반응 평균보다 더 모험적이었으며, 통제집단에서는 2회의 반응 평균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피험자내 실험설계, CDQ 및 개인의사결정 - 집단토의 - (집단의사결정) - 개인 의사결정의 절차는 모험이행현상의 연구에서 하나의 전형으로 이어졌다. 한편, Marquis(1962)는 Stoner의 자료를 심층분석하여 CDQ에 대한 전체적 반응 평균은 토의후에 더 모험적이지만, 일부 딜레마에서는 토의후에 더 보수적인 반응이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이 현상은 보수이행(conservative shift) 혹은 조심이행(cautious shift)이라고 불리며 후속연구들(예, Stoner, 1968; Wallach, Korgan & Bem, 1962)에서도 반복검증되었다. 보수이행은 자신의 생존이나 결혼과 같은 중대사이거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된 딜레마들에서 주로 발견된다(Brown, 1986).

또한 모험 및 보수이행은 CDQ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제와 상황하에서도 일어나며, 모험성 차원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단토의없이 타인들의 견해를 단순히 알기만해도 이행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현상의 일반성에 관한 다음절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이와 같은 변천과정을 거쳐서 시초에 CDQ를 통해서 밝혀진 모험이행은 10여년간에 집단상호작용이 개인들의 처음의 견해를 더 강화시킨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현상의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이 알려지게 되고, 이에 걸맞는 집단극화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현상의 본질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집단극화 현상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극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토

의전 반응 평균이 예언 지표가 되는데 집단토의전 개인들의 반응 평균이 모험적이면 토의후에는 모험이행이, 토의전 반응 평균이 보수적이면 보수이행이 일어난다(Myers, 1982).

또한 극화량의 예측에 있어서도 역시 토의전 반응 평균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극화량과 개인들의 토의전 반응 평균간에 .51~.94 범위의 높은 정적상관이 보고되고 있으며(Brown, 1988; Myers, 1978; Myers & Arensen, 1972; Singleton, 1979; Teger & Pruitt, 1967), 중다회귀분석 자료에서도 개인들의 최초 경향이 극화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Berndt, McCartney, Caparulo & Moore, 1983-1984; Jesuino, 1986). 개인들의 최초 경향이 극단적일수록 동일방향으로 극화될 수 있는 여지가 더 적기 때문에 실제의 극화량도 더 적어지는 상한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극화량이 더 커진다는 사실은 집단극화가 매우 강력한 현상임을 알게 해준다. 한편, Hogg와 McGarty(1990)와 Wetherell(1987)은 극화량이 토의전 반응 평균과 집단의 전형(즉, 규범)으로 지각되는 입장간의 차이의 함수로서, 차이값이 클수록 극화량도 커지고 차이가 없이 두 값이 일치하면 동조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Moscovici(1985)는 집단극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① 집단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위계의 존재,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물리적 환경, 구성원들의 이질성

② 집단구성원들간의 관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당면문제에 관한 사회적 규범의 존재, 이 규범의 특출성, 의사결정 내용이 집단에 가져올 결과, 개인적 관여도

③ 정보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집단극화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구성원들이 나타내는 반응의 동질화이다. 즉, 집단상호작용후 개인들의 반응 평균이 극화됨과 동시에 반응의 변량도 수렴되는 현상이다(한덕웅과 성한기, 1985; McCauley, 1972; Turner et al., 1987). 동조현상 역시 반응수렴이 특징이나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집단극화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반응 평균은 극화되었으나 반응이 동질화되지는 않았다(성한가, 1984; Myers, Bach & Schreiber, 1974).

마지막으로, 집단극화와 유사한 개념들인 선택이행과 극단이행(extremity shift: 일명 극단화, extremization) 등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집단극화는 개인들의 의견 평균이 집단상호작용후에 더 극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선택이행은 집단토의후의 집단의 사결정이 토의전의 개인 평균보다 더 극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전자를 집단내의 영향과정으로, 후자를 의사결정이라는 과제수행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려는 시도(McGrath, 1984)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현상은 동일한 기제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함께 다루어 지며(Lamm & Myers, 1978; Levine & Moreland, 1990), 본고에서도 두 현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모두 고찰한다. 그리고 집단극화와 선택이행은 이미 선호된 극단을 향한 이행인 반면에, 극단이행은 방향과는 관계없이 중간점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도 한다.(Davis & Hinsz, 1982; Myers & Lamm, 1976).

연구경향의 역사적 흐름

30년의 연구 기간은 주된 연구 경향으로 보아서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제1기(1961~60년대말)는 개념의 정립기이다. 초기의 개념인 모험이행현상의 검증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에 관한 이론적 설명들이 시도되었다. 이 시기의 후반에 모험이행의 일반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집단극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다(Moscovici & Zavalloni, 1969). 그러나 이 시기에 제안되었던 많은 이론들은 현재의 개념에 대한 설명력은 거의 없는 것들이었고, 다만 모험이행이나 보수이행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Brown(1965)의 주장만이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 기반을 조성했다.

제2기(70년대 초~80년대 초)는 이론의 정립기로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연구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다. 실제로 집단극화는 귀인, 대인지각 및 태도변화 등과 함께 70년대에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이다(Fisch & Daniel, 1982). 이러한 경향

은 70년대 초에 쏟아져 나온 일련의 개관 논문들(Cartwright, 1971; Clark, 1971; Dion, Barom & Miller, 1970; Fraser, 1971; Pruitt, 1971a, 1971b; Vinokur, 1971)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연구자들은 확장된 개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확장된 개념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이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인 이론이 설득주장이론(persuasive arguments theory)과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으로서 두 이론의 검증과 상호공방(예, Burnstein & Vinokur, 1977; Sanders & Baron, 1977)이 이 시기의 주된 연구 경향이었다.

제3기(80년대 중반 이후)는 재검토기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쇠퇴했던 집단극화 연구는 Turner(1985; Turner et al., 1987)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이 기존 이론과는 다른 혁신적인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Isenberg(1986)가 기대했던 바대로 집단극화를 다른 사회심리학적, 인지적 현상과 통합시킬 수 있는 제3의 연구 물결이 일고 있다. 자기범주화이론이 다수의 지지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회비교이론과 설득주장이론간의 상대적 우위논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했던 집단극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집단극화에 관한 실험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전략이 사용되어 왔다(Myers, 1982, 1988). 한가지는 Stoner이래의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을 개인적으로 표하게 한 다음, 토의 등으로 타인의 의견을 알게하고 그 후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의견이 처음보다 더 극단적인지를 확인한다. 다른 방법은 지배적인 경향이 뚜렷한 주제보다는 의견이 분분한 주제를 택해서 유사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끼리 묶어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끼리의 토의후의 극화량을 비교한다. 이 경우 토의는 두 집단간의 최초의 의견차이를 더 심화시키리라고 예언된다. 예를 들어, Myers와 Bishop(1970)은 인종 편견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토의 전후의 흑백 통합에 관한 태도를 비교하여 토의전보다 토의후 두 집단간의 차이가 더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현상의 일반성

어떤 현상의 일반성을 논의하는데 따르는 한가지 문제점은 영가설이 기각된 결과들이 기각되지 않은 결과보다 더 빈번히 보고되었을 가능성이다(Greenwald, 1975).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집단극화현상은 연구된 거의 모든 차원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일반성이 확립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는 극화 연구에 사용되었던 과제유형과 집단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른 일반성 그리고 현상의 외적 타당도와 관련하여 실제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단극화를 살펴본다. 이 밖에도 집단극화현상은 10개국 이상의 문화권(예, 한덕웅과 성한기, 1985; Gologor, 1977; Hong, 1978), 성별(Johnson, Stemler & Hunter, 1977) 및 집단규모(Myers & Arensen, 1972) 등에 따라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과제유형에 따른 일반성

모험하기: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과제인데, CDQ를 사용한 연구와 도박행동을 다룬 연구들로 크게 나누어 진다. Stoner와 동일한 CDQ를 사용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모험이행 및 보수이행이 입증되고 있으며(여, Goethals & Zanna, 1979; Hogg, Turner & Davidson, 1990; Laughlin & Earley, 1982), 12개의 딜레마 중 10개는 모험이행이, 나머지 2개는 보수이행이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CDQ와 유사하게 별도로 제작한 딜레마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모험이행이나 보수이행이 신뢰롭게 발견된다(성한기, 1984; Fraser, 1971; Witte & Lutz, 1982).

도박행동은 Pruitt와 Teger(1969)가 집단이 개인보다 내기에서 더 큰 돈을 걸고, 더 낮은 승리 확률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한 이래, 모험행동의 극화에 관한 연구에서 인기있는 한가지 과제로 활용되고 있다(예, Crott, Zuber & Schermer, 1986; Felsenthal, 1979). Blascovich, Ginsburg 및 Howe(1975)는 이기면 건돈의 2배를 받고 지면 건돈을 잃는 블랙잭이라는 카지노 게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20시행을 한 다음, 집단 토의를 거쳐 집단으로 다시 20시행을 하도록 하였다. 결과를 보면, 집단토의없이 개인적 시행만을 반

복한 통제조건의 피험자들은 건돈의 액수에서 변화가 없었으나, 집단토의를 거친 실험조건에서는 집단이 개인보다 더 큰 돈을 거는 모험이행이 일어났다. 또한 토의없이 단순히 공동으로 게임하도록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다(Blascovich, Ginsburg & Veach, 1975). 그러나 경마를 이용한 Knox와 Safford(1976)와 McCauley, Stitt, Wood 및 Lipton(1973)의 연구에서는 보수이행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극화 방향의 차이는 개인과 집단이 사용한 금액과 시행수의 차이로 해석된다(Sanders, 1978). 즉, 블랙잭연구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내기에 사용한 금액이 동일했으나, 경마연구들에서는 집단이 사용한 금액은 개인의 수만큼 커졌다. 내기에 거는 액수가 커질수록 당연히 조심스러워지는데, Sanders(1978)는 이런 방식으로 블랙잭을 하도록 하여 보수이행을 입증했으며, 성한기(1987)와 Zaleska(1976)의 연구에서도 집단이 개인보다 건돈의 액수가 클 때 보수이행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회의 시행만 허용된 경마 연구와는 달리 블랙잭 연구에서는 20회의 시행이 주어졌는데, 대체로 10~15회 시행부터 모험이행이 일어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시행수에 따른 결과는 시행이 거듭되면 교정적 편향이 작용한다고 착각하여 이길확률을 과대추정하는 소위 '도박사의 오류(gambler's fallacy: Tversky & Kahneman, 1971)현상'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성한기, 1987).

사회적 및 정치적 태도: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집단극화현상이 모험-보수차원 이외의 다른 측면에까지 일반화 됨을 잘 보여준다. Mackie와 Cooper(1984)는 대학생들로부터 '상급학교 선발기준으로 GRE와 같은 표준화 검사의 사용'에 관한 개인적 태도를 얻고 3인 집단이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벌이는 녹음 테이프를 들려준 다음, 다시 개인적 태도를 측정하여 테이프에서 주장된 방향대로 극화된 결과를 얻었다. Doise(1969)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자신의 대학에 관해서는 토의후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쟁대학에 관한 태도는 토의후 더욱 비호의적이었다. 이외에도 특정 인물 및 인종(Moscovici & Zavalloni, 1969; Myers & Bishop, 1970), 여성해방(Pachelor, 1976), 성교육과 약물복용(Madsen, 1978), 신상품(Johnson & Andrews, 1971) 및 핵무장 해제, 사형 등의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Gouge & Fraser, 1972; Mackie,

1986, 실험 2; McGarty, Turner, Hogg, Davidson & Wetherell, in press; Reid, 1983) 등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도 집단극화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연구들에서는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Cvetkovich & Baumgardner, 1973; Myers & Bach, 1974).

판단 : Berndt 등(1983-1984)은 국만학생들의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일련의 딜레마에 대한 반응이 토의후에 더 이타적으로 극화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암실에서 자동운동거리(Baron & Roper, 1976), 범주의 폭(Vidmar, 1974) 및 기업의 투자(McGuire, Kiesler & Siegel, 1987)에 관한 판단에서도 극화가 일어났으나, 2000년대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게 한 Lamm Trommsdorff(1974) 연구에서는 집단토의 전후의 판단이 차이가 없었다.

모의 배심원 판결 : 배심원 각자가 토의전에 지녔던 개인적 견해와 배심원단의 토의후에 만장일치된 결정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예, Hastie, Penrod & Pennington, 1983)은 법정외의 판결 과정에 대한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여러가지 역동성이 결여된 약점을 있으나 모의 배심원단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분명한 극화를 보여준다. Isozaki(1984)와 Myers와 Kaplan(1976)의 연구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 사례를 토의한 후에는 모의 배심원들의 처벌이 토의전보다 더 관대해졌으며, 큰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범에게는 토의후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 또한 배심원들의 토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배심원들의 의견을 단순히 접하기만 해도 동일한 극화효과가 나타났다(Cotton & Baron, 1980; Kaplan, 1977; Myers, 1978). Bray와 Noble(1978)은 권위주의적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게 각각 살인미수범에 대해서 형량을 결정하도록 한 결과, 권위주의적 배심원들의 심의후 판결은 심의전의 개인적 의견 평균보다 더욱 엄한 방향으로, 그리고 비권위주의적 배심원들은 심의후에 더 관대한 방향으로 극화를 보였다.

그런데 일부 연구들에서는 피고에 대한 기술이 정적이건 부적적이건 관계없이 토의후에는 모두 더욱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Davis, Kerr, Atkin, Holt &

Meek, 1975; Izzett & Leginski, 1974; Ono & Davis, 1988; Rumsey, Allgeier & Castore, 1978). 또한 흥미로운 결과로서 Kaplan과 Miller(1987)는 피험자들에게 상해사건의 피고에 대한 형벌보다는 원고에게 줄 피해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심의의 초점을 두게 하였더니 개인적 결정보다 심의후에 집단으로 결정케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극화의 예언에 있어서 앞에서 논의되었던 토의전 경향성 이외에 관대함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 또는 규범도 관련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Lamm & Myers, 1978). 그리고 또 한가지 가능한 원인으로는 형량 판단의 경우에는 관대함과 엄격함으로 2분하는 반응 척도의 중간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토의전 경향성도 따라서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배심원 판결에 관한 몇몇 실험들의 결과는 토의전 경향을 강화시키는 진정한 집단극화인지 아니면 토의전 경향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극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극단화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 각각의 결과가 나타나는 조건이나 상황을 밝히는 등, 이러한 다소 혼란된 결과들을 해명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연구들이 요청된다.

반사회적 및 친사회적 행동 : 몰개인화 연구들(예, Diener, Fraser, Beaman & Kelem, 1976)로부터도 예측될 수 있듯이 집단상호작용은 개인의 공격행동도 더 강화시킨다. Yinon, Jaffe 및 Feshbach(1975)는 학습자가 오답을 할때 불빛이나 10가지 수준의 전기쇼크 중의 하나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여 개인과 집단의 결정을 비교하였다. 전기쇼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적 보상이 없으며 쇼크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상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약간의 쇼크를 사용하였는데 집단이 개인보다 더 높은 강도의 쇼크를 선택했다. 전기쇼크 집행 강도를 측정할 다른 연구(Wolosin, Sherman & Mynatt, 1975)와 벌금 징수액(Mathes & Kahn, 1975)이나 군집행동(Johnson et. al., 1977)를 다룬 연구에서도 개인보다 집단이 더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에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혼란될 결과를 보여준다. Schroeder(1973)는 시간 제공이나 금전 기부에 관한 일련의 상황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상황속의 가상 인물에게 조언을 주도록 한 결과, 개인적 조언보다 토의후의 집단의 조언이 더 친사회적이었다. Muehlman, Brucker 및 Ingham(1976)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자신의 돈을 실제로 기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집단이 개인보다 더 인색하였다.(Baron, Roper & Baron, 1974).

집단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일반성

집단토의가 집단극화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도 일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집단토의없이 타인들의 토의를 녹음한 테이프를 듣거나 타인들의 반응에 관한 서면 정보를 접하지만 해도 극화가 일어남이 보고되었다(성한기, 1984; 한덕웅과 성한기, 1985; Baron & Roper, 1976; Burnstein & Vinokur, 1975; Mackie, 1986; Mackie & Cooper, 1984; Myers, 1978; Teger & Pruitt, 1967). 그리고 집단토의 조건과 수동적 정보수용 조건을 비교한 연구들은 대체로 두 조건간의 극화량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Blascovich, Ginsburg & Veach, 1975; Goethals & Zanna, 1979; Madsen, 1978; Myers et al., 1974; Singleton, 1979). 또한 위의 두 조건은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집단상호작용의 양과 극화량간에도 유의한 상관미 발견되지 않았다(Jesuino, 1986).

다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집단토의 조건에서 수동적 정보수용 조건에서의 극화량보다 더 컸으며(Mayer, 1985; Myers, Wong & Murdock, 1971), 수동적 정보수용만으로는 극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하였다(Bishop & Myers, 1974; Stokes, 1971).

집단토의 조건에서만 교환되는 비언어적 정보와 보다 생동감있는 분위기 등이 집단극화의 가능한 영향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모든 설명 이론들이 제시하는 극화의 주요 원인들은 두 조건간에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요인들이다. 즉, 교환되는 정보의 설득력이나 사회적 가치와 같은 정보 자체의 특징 또는 정보원의 특징을 극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수동적 정보수용 조건에서도 충분히 극화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실제 장면에서의 집단극화

실험실에서 급조된 가상적 집단이 아니라 실존하는

집단에서의 극화를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결과들도 상반된 실정이다. Walker와 Main(1973)은 미국 연방재판소의 1900여 사태를 단독 및 3인 합의 판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합의 판결이 단독판결보다 더 자유주의적이었으므로 발견했으며, Blascovich, Ginsburg 및 Howe(1976)는 카지노의 도박행동에서 모험 및 보수이행이 일어남을 관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평가위원회의 직무등급 판정에 관한 Semin과 Glendon(1973)의 연구들에서는 1년여전에 거쳐서 이루어진 28가지의 직무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의 개별적 판정 점수의 평균과 토의후의 집단 판정 점수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Reingen(1974)도 대학생들의 구매행동에서 집단극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Brown(1988)과 Fraser와 Foster(1984)는 실제의 사회적 집단은 실험실 집단과는 달리 역할구조, 집단 규범, 감정적 관계망 및 관습적 절차 등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특징들이 극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집단극화는 집단의 발달단계로 보아 초기의 형성단계만 일어나거나 지배적인 규범이 없는 비교적 생소하거나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Walker와 Main(1973) 및 Blascovich 등(1976)의 집단은 실제집단이기는 하지만, 한 사례를 판결하거나 잠깐의 도박후에는 해체되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일시적 집단이기 때문에 실험실 집단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Brown(1988)이나 Fraser와 Foster(1984)의 결론이 성급한 것임을 시사하는 장기적 집단에서의 극화 증거들도 있다. 유사성-매력 현상(Byrne, 1971)으로부터 쉽게 추론되듯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대부분의 티공식 토의들은 동질적인 내집단에서 이루어지고, 내집단 상호작용이 계속될수록 최초에 있었던 외집단과의 차이는 더 심화될 것이다. 성한기(1989)는 239명의 남녀 대학생들의 보수성향을 3~4년 간격으로 반복 측정하여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서 더 진보화되며, 입학 당시에 보수적인 대학생일수록 진보화 경향이 더 두드러져서 대학생 집단의 보수성향이 점차 동질화됨을 발견하고 대학문화의 진보지향성과 구성원들의 상호영향을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했다. Feldan과 Newcomb(1969)

도 각 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차이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커짐을 관찰했다. 그리고 Reiley Pettigrew(1976)는 흑인 지도자인 King박사 암살 전후에 걸쳐서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는데, 편견이 큰 집단과 작은 집단간의 차이가 암살전보다 후에 더 컸음을 발견하고 이를 극적인 사건이 집단토의를 자극한 때문으로 해석했다. 실제의 자연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결과들은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나 모두 실험실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론적 설명

집단극화에 관한 이론적 발전은 일반성의 확장에 따른 개념의 변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많은 이론들이 부침했으며, 현상의 일반성은 전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이론적 설명에 있어서는 아직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우선 60년대에 제안되었던 네가지의 초기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가장 영향력이 큰 세 이론을 차례로 소개한다.

초기 이론들

초기 이론들은 대개 모험이행현상의 설명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한정된 설명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단지 역사적 의미만 지니고 있을 따름이다. 먼저 책임감 분산이론(diffusion-of-responsibility theory: Wallach, Kogan & Bem, 1964)을 보면 집단에서는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전 구성원에게 분산되어 실패공포가 감소되기 때문에 모험이행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친숙화이론(familiarization theory: Bateson, 1966)에서는 집단토의를 함으로써 토의주제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친숙성의 증가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모험을 감행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고, 리더쉽이론(Marquis, 1962)은 집단토의에서 모험을 강조하는 사람이 상황을 주도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모험이행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문화적 가치이론(cultural value theory: Brown, 1965)는 미국 문화권에서는 모험이 가치있고 바람직하게 여기지기 때문에 모험이행이 일어난다고 제안하였다(초기 이론들에 관한 상세한 기술 및 비판은 Dion et. al., 1970과 Pruitt, 1971a 참고).

앞의 세 이론은 공통적으로 보수이행을 비롯한 집단극화의 확장된 개념을 설명할 수 없음에 따라 도태되었고, 문화적 가치이론은 Stoner(1968)와 Fraser(1971)에 의해서 보수이행 등을 설명가능하도록 확장 보완됨으로써 초기 이론들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전반적인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항 특유의 가치도 집단토의과정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험지향적 문화권에서도 보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는 보수이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구된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모험이행이 보수이행보다 더 빈번히 보고되고 이행량도 더 큰데, 이러한 경향의 원인을 Fraser(1971)는 모험이행이 일어나는 문항에서는 전반적인 모험지향성과 문항특유의 가치가 동일한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반면에, 보수이행이 일어나는 문항에서는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의 가치가 반대방향으로 작용해서 상쇄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서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양권 피험자들에게서는 모험이행보다 보수이행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결과(성한기, 1984, 1987; Hong, 1978)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이론은 나아가서 가치가 극화를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보다 정교한 설득주장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면서 두 이론에 흡수되어 맥을 이어간다.

설득주장이론

이 이론에 의하면 집단극화는 토의 중에 타인들이 제시하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일어난다.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Vinokur & Burnstein, 1974; Vinokur, Trope & Burnstein, 1975). 어떤 의사결정 문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주장들의 전집이 있는데, 찬반주장들의 수와 설득력에 따라서 전집의 전반적인 성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집단토의전의 모든 개인들의 반응 평균은 바로 이 전집 성향을 반영한다. 각 개인은 전집의 일부 주장들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어서 주장표집의 성향이 각자의 최초 의견이 된다. 집단토의의 동안 개인들은 이전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들을 접하게 되고 아울러 전집의 성향을 파악하게 된다. 새로운 주장들 중에서 전집 성향과 일치하는 주장들은 반대되는 주장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설득

력있게 지각되어 토의전 방향으로의 극화가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의견이 전집 성향과 달랐던 사람들은 설득주장에 의하여 의견을 변화시키는 반면에, 전집 성향과 일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집단토의후의 집단 평균은 토의전보다 더 극화된다. 결국 집단 극화를 설득정보의 처리에 의한 태도변화과정으로 해석한다.

설득주장이론의 지지 증거는 확고하다. 먼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토의전 반응 평균은 극화량의 중요한 예언지표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토의전 반응 평균은 설득주장 전집의 찬반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토의에서 제시되는 주장들의 찬반비율이 극화의 방향 및 양을 좌우하리라고 기대되며,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되었다(성한기, 1984; Bishop & Myers, 1974; Burnstein & Vinokur, 1973, 1975; Kaplan, 1977; Madsen, 1978; Morgan & Aram, 1975; Vinokur & Burnstein, 1974, 1978). 이 연구들은 대체로 어떤 주제에 대한 찬반주장의 비율을 직접 조작하여 그에 따른 극화를 검토한다. Ebbessen 과 Bowers(1974)는 선택딜레마에 관한 토의를 녹음하여 피험자들에게 들려주었는데, 토이 내용의 모험 : 보수 비율을 9 : 1부터 1 : 9까지 5단계로 체계적으로 변화시켰다. 결과는 설득주장의 예언대로 녹음된 토의내용을 들은 후의 모험이행량과 모험주장의 비율간의 상관계수가 .98이었다. 즉, 모험주장의 비율이 높으면 모험이행이 그리고 보수주장의 비율이 높으면 보수가행이 일어났고, 5 : 5의 비율이었을 때는 이행이 없었다.

그런데 집단토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타인들의 설득주장을 접하게 됨과 동시에 그들의 찬반연속선상의 위치도 알게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집단극화 원인의 해석이 애매해진다. 다시 말해서 극화의 원인이 설득주장인지, 위치 정보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설득주장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위치에 관한 정보는 없이 주장만 교환되는 토의 조건에서 검토하는 일이다. 주장만을 제시한 조건을 이용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극화가 신뢰롭게 얻어져서 설득주장이론을 지지하고 있다(Burnstein & Vinokur, 1973,

1977; Clark, Crockett & Archer, 1971; Hinsz & Davis, 1984; Myers et al., 1974).

어떤 주장이 설득적인지에 관해서 몇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Burnstein(1982; Vinokur & Burnstein, 1978)은 주장의 타당성(Validity)과 신기함(novelty)이 설득력의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어떤 주장이 처음 듣는 생소한 것이면서 그럴듯하면 설득적이다. 구체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그것이 생소한건 친숙하건 관계없이 설득적으로 지각되는데 비해서, 신기한 주장은 타당하게 보일 경우에만 설득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친숙한 주장은 설득적일 수는 있으나 개인의 의견에 이미 고려된 것이어서 의견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 극화는 신기하면서 타당한 주장들이 많은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예측된다. Vinokur Burnstein(1978)은 신기함 요인의 극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선택딜레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은 다음, 한 조건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모험지향적인 신기한 주장과 보수지향적인 친숙한 주장을 제시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보수지향적인 신기한 주장과 보수지향적인 친숙한 주장을 제시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보수지향적인 신기한 주장과 모험지향적인 친숙한 주장을 제시했다. 주장들을 접한 후의 개인 의견을 다시 얻은 결과, 두 조건 모두에서 신기한 주장의 방향으로 의견이 극화되었다. 또한 제시되는 주장의 수가 많아서 신기한 주장을 접할 가능성이 클수록 극화량이 큰 결과(성한기, 1984; 한덕웅과 성한기, 1985)이나 신기함의 지각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특성인 전문성이 낮을수록 토의후 의견변화가 큰 결과(Vinokur, Burnstein, Sechrest & Wortman, 1985)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다.

한편, 타당성은 주장이 진실이거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정도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집 성향과 일치되는 다수의 주장이 타당하게 지각된다(Vinokur & Burnstein, 1978). 그런데 전집 성향과 일치되는 주장이 왜 타당하게 지각되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없다. Kerr와 Watts(1982)는 소수 의견을 지닌 사람들은 반대주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가설화했으나, 가설과는 달리 소수와 다수 모두가 자신들

의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 결과를 얻어서 지지되지 않았다. 아마도 인지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설득주장이론의 지지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전집 성향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와 일치하는 주장은 가치 또는 규범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게 지각된다고 해석되어야 하겠다. 그렇다면 집단 구성원들은 토의에서 제시되는 모든 정보를 가차나 규범과는 무관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토의는 구성원들이 토의전부터 지니고 있던 기존 정보와 이를 지지하는 정보들에 의해서 크게 지배되는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기존 정보와 이를 지지하는 정보들에 의해서 크게 지배되는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기존 태도를 지속 또는 더 강화시키게 된다(Fisher, 1990; Stasser & Titus, 1985, 1987). 요컨대, 설득주장이론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라도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회비교이론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각하고, 또 이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극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여 사회적 동기의 역할을 강조한다(Baron et al., 1975; Blascovich et al., 1976; Brown, 1974; Myers et al., 1974). Festinger(1954)로부터 기원되고 집단극화에 창의적으로 적용된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객관적 수단으로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타인들과 비교함으로써 평가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과시하려는 욕구도 있어서(Jellison & Arkin, 1977), 만일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남보다 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 자신과 남의 차이를 감소시키려는 압력이 생겨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킨다. 반면에 자신이 남보다 더 바람직함을 알게된 사람은 의견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집단상호작용후의 구성원들의 전체적 입장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방향으로 극화

된다.

결국, 사회비교이론은 토의에서 교환되는 설득적 주장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방향을 암시하는 타인들의 입장에 관한 정보가 집단극화의 결정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집단토의가 없이 타인의 입장만 알더라도 극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두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이 이론의 지지증거들을 고찰해본다. Jellison과 Riskind(1970; Jellison, Riskind & Broll, 1972)는 피험자들에게 모험이행을 유발하는 10개의 선택딜레마에 대한 어떤 가상적 인물의 반응기록을 보여주고 형용사 체크리스트로 그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높은 모험을 선택한 인물이 낮은 모험을 선택한 인물보다 더 유능하다고 평가되었다. 또 Baron과 Roper(1976)는 자동운동현상을 이용하여 광점이 움직인 거리를 개인 및 집단 조건에서 각 15회씩 추정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운동거리를 길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주었더니 개인 조건에서보다 집단 조건에서 운동거리의 추정치가 유의하게 더 컸다. 이 결과들로부터 극화가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은 타인의 위치에 관한 정보만 알아도 극화가 일어남을 보여준다(성한기, 1987; Goethals & Zanna, 1979; Myers, 1978; Myers, Bruggink, Kersting & Schlosser, 1980). Myers, Wojcicki 및 Aardema(1977)는 교회의 신도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의 추정치보다 자신의 의견이 약간 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얼마 후에 실제의 전체 평균 또는 반응분포를 제시하고 다시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단순 반복조사한 통제조건보다 의견이 더 극화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비교이론의 지지증거가 될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지배적인 방향으로의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유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여 흥미롭다. 이와 더불어 Baron과 Roper(1976)의 연구에서 처럼 관련 주장을 거의 생각해낼 수 없는 과제에서도 극화가 확인된 결과도 이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사회비교이론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동기와 관련시켜 볼 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자신을 호의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며 타인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려고

하나?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고양과 동조 혹은 겸양간의 절충이 이루어지는 위치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본다(Isenberg, 1986). 즉,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려는 욕망과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크게 이탈되지 않으려는 욕망의 교차점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약간만 더 바람직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경향이 각자의 반응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단극화가 일어난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Moscovici(1985)는 사회적 영향의 역할을 혁신(innovation) 과정과 정상화(normalization) 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집단극화는 이 두 과정의 공동의 산물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Moscovici와 유사하게 사회적 영향과정을 차별화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Moscovici와 유사하게 사회적 영향과정을 차별화(differentiation)와 동일시(identification)로 구분한 Mackie와 Cooper(1984)를 비롯한 자기범주화이론가들은 집단극화를 집단규범에의 동일시 즉, 동조과정으로 분석한다.

두 이론의 대비 및 과제

사회비교이론과 설득주장이론은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영향 중 각각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eutch와 Gerard(1955)는 사회적 영향을 타인의 기대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규범적 영향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진실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정보적 영향으로 나누었다. 그 구분에 따르면 사회비교는 규범적 영향을 반영하고, 설득주장은 정보적 영향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은 대부분의 사회적 장면에서 동시에 작용하며(Forsyth, 1990; Stasser, Kerr & Davis, 1980)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얽혀있다.(Lamm & Myers, 1978; Miller, 1978). 이는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두 이론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문화적 가치와 연결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더우기 두 이론이 각기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연구설계인 주장만이 교환조건이나 입장만의 교환조건에서나온 결과들도 주장으로부터 입장을, 그리고 입장에서부터는 주장을 추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어느 한 요인만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느 한가지 설명만이 옳다는 이론적 배타주의는 경쟁 이론들을 배격할 만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경쟁 이론들 각각이 설명력을 갖는 조건들을 지닌다면 마땅히 경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설득 주장과 사회비교가 모두 집단극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2요인설에 동의한다(예, 한덕웅과 성한기, 1985; Brown, 1986; McGrath & Kravitz, 1982; Myers & Lamm, 1976). 구체적으로, 사회비교와 설득주장이 극화의 유발에 있어서 모두 필요하다는 주장(Sanders & Baron, 1977)도 있으나, 대다수는 두 요인 모두 영향력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 요인만으로도 충분히 극화된다는 견해를 보인다.

두 이론이 각각 축적하고 있는 지지증거들 이외에 2요인설의 근거가 되는 한 가지 특성은 복귀성(recidivism)이다. 복귀성이란 집단맥락을 떠난 후의 개인적 반응이 원래의 개인적 신념과 가까워지는 경향(Miller, 1978)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이론이 이에 관해서 상이한 예언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준거가 된다. 즉, 사회비교이론은 극화를 이미 지유지를 위한 집단규범에의 순종으로 개념화하기 때문에 집단이 해체되면 규범도 자연히 없어지므로 원래의 의견을 다시 고수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반면에 설득주장이론에서는 집단토의를 통해서 태도가 변화되고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집단이 해체된 뒤에도 극화된 의견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언한다. 복귀성의 정도를 알아보려면 ① 토의전의 개인적 결정 ② 집단결정 및 ③ 토의후의 개인적 결정을 확인하여 ②에서 ①을 뺀 값과 ③에서 ①을 뺀 값을 비교 또는 ②와 ③을 비교하거나 ①②③을 추세분석하는데, 3회의 연속적 측정이 쉽지 않아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경향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에도 주의를 요한다. 성한기(1987)는 카드 게임을 이용하여 피험자들에게 각자의 주장 또는 위치 정보만 교환하도록 토의를 시킨 후, 집단에서의 선택 행동과 차후의 개인적 선택의도를 비교하였다. 두 이론으로부터의 예언대로 위치정보만 접한 피험자들은 토의후 선택의 극화량보다 차후 선택의도의 극화량이 더 적었으나, 주장을 접한 피험자들의 두 가지 극화량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실제 토의에서의 복귀성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이론(Paicholor & Bouchet, 1973)과 설득주장이론을 각각 지지하는 결과(McGuire et al., 1987)도 있으나 대체로 중간 정도의 복귀성을

보여서 정보적 영향과 규범적 영향이 모두 작용함을 암시한다(Forgas, 1977; Laughlin & Earley, 1982; Moscovici & Lecuyer, 1972). 그런데 변화 저항경향을 줄이기 위하여 토의전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연구에서는 복귀성이 크게 증가한 결과(Baron, Moson & Baron, 1973)가 보고되어서 사회비교이론이 더 타당한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는 어느 이론이 옳으나의 논쟁으로부터 두 이론이 모두 타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방향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한 가지 접근 가능한 연구방향은 각 이론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찾는 일이다(한덕웅, 1990; Isenberg, 1986). 그러한 시도로써 Kaplan과 Miller(1987)는 과제유형과 의사결정규칙에 따라서 상대적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가설화하고 정답이 있는 지적과제(intellective task)에서는 정보적 영향이, 그리고 정답이 없는 판단과제에서는 규범적 영향이 더 크며 이러한 경향이, 그리고 정답이 없는 판단과제에서는 규범적 영향이 더 크며 이러한 경향은 다수 규칙보다 만장일치규칙이 적용될 때 더 뚜렷함을 발견했다. Laughlin과 Earley(1982)의 연구에서도 판단과제와 지적과제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이 밝혀졌다. 그리고 게임이나 내기와 같이 다소 경험 및 관찰 빈도가 많아서 거의 모든 가능한 주장들이 개인적으로 검토된 과제(성한기, 1987; Blascovich & Ginsburg, 1978)나 다양한 주장을 생각해내기 어려운 과제(Baron & Roper, 1976; Vidmar, 1974)에서는 사회비교 정보의 영향력이 더 크고, 반면에 CDQ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가상적이며 생소한 상황을 다루는 과제에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토의주장들의 신기함이나 타당성이 크게 지각되어 설득주장의 영향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Isenberg(1986)는 자아관여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서 관여수준이 높으면 설득주장의 영향력이 우세하고, 관여수준이 낮으면 사회비교가 더 강력한 요인일 것으로 제안했다.

둘째, 사회비교와 설득주장이 집단극화를 유발시키게 되는 인과적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Sanders와 Baron(1977)은 사회비교는 원인(遠因)으로서 극화를 동기화시키고, 설득주장은 근인(近因)으로서

극화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여 사회비교 → 설득주장 → 집단극화의 인과관계를 시사했다. 그리고 Ono와 Davis(1988)는 설득주장은 토의 주제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키고, 사회비교는 타인의 입장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식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세째, 설득주장 및 사회비교 효과의 가산성에 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많다. 즉,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상승효과를 가져와서 어느 한 요인만의 효과보다 더 클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Stasser 등(1980)은 정보적 사회 영향과 규범적 사회 영향의 가산효과를 주장하였고, 집단토의후의 극화량이 위치정보만을 수동적으로 접한 후의 극화량보다 더 컸다는 결과(Myers et al., 1971; Teger & Pruitt, 1967)는 두 요인의 가산성을 시사한다. 성한기(1984, 1987; 한덕웅과 성한기, 1985)는 두 요인의 가산성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Singleton(1979)의 연구에서는 집단토의 조건, 주장정보 조건, 위치정보 조건 그리고 주장 및 위치정보 조건에서의 극화량을 비교하여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극화를 발견했으나, 각 조건간의 극화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어서 설득주장과 사회비교 효과의 가산성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덕웅(1990)은 두 요인의 가산효과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어느 한 요인만으로는 최고 수준의 극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과제 또는 여러번의 의사결정을 거쳐야만 극화가 일어나는 조건 등에서는 가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론적 기반에서 두 이론의 개념적 통합을 모색하는 길도 가능한 방향이 되겠는데, 다음에 기술되는 자기범주화이론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다.

자기범주화이론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집단극화를 극단화된 내집단 규범에의 동조현상으로 해석하며,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극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앞의 두 이론과는 달리 집단을 분석수준으로 삼는다(Turner,

1985; Turner et al., 1987; Turner & Oakes, 1989). 이 이론은 Tajfel(1978)을 위시한 사회적 정체(social identity)이론가들의 관심이 집단간 관계로부터 집단내 과정 및 심리적 실체로서의 사회적 정체와 관련된 집단의 본질로 옮겨짐에 따라서, 모든 집단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정체와 관련된 집단과정의 기본적 인지기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적 정체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확대 수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을 둔다. 사람들은 자기개념을 3가지의 추상수준으로 범주화한다: 인간대 기타 생물로 범주화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감 수준, 내집단 대 외집단의 사회적 정체감 수준 및 자기 대 타인의 정체감 수준, 개인적 수준으로부터 사회적 수준으로의 정체감 변화(비개성화, depersonalization)가 집단현상의 기본전제가 되는데, 이는 자신을 어떤 사회범주(또는 집단)의 일원으로 지각하여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개성화란 정체감이 상실되는 몰개인화(deindividuation)와 달라서 정체감 수준의 변화관 포함될 뿐이다.

사회적 정체로의 변화와 더불어 집단현상들의 기본적인 분석틀이 되는 개념이 준거적 정보 영향(referent informational influence)이다. Turner(1982, 1985)는 사회적 영향에 관한 Deutsch와 Gerard(1955)의 2분법이 개인간 과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집단과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며, 설명상의 중복도 많다고 비판하고 두 가지 영향을 준거적 정보 영향을 제안했다. 즉, 그는 사회적 영향은 개인간 과정이 아니라 집단내 과정이며 집단 멤버쉽의 공유와 이에 따른 집단규범이 존재할 때에만 집단내 상호 영향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은 정보적 내용 자체보다는 그가 내 집단의 일원이며 그것이 내집단의 규범을 대표할 수 있을 때만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두 가지 영향을 결합하였다. Hogg와 Abrams(1988)는 준거적 정보 영향의 작용과정을 5단계로 구체화한다: 자기 범주화 → 내집단 규범의 형성 또는 발견 → 내집단 규범의 인지적 표상 → 내집단 규범을 자신에게 부과 → 내집단 규범에 따른 행동.

집단내에서 가장 규범적 또는 전형적인 입장(즉,

내집단 규범)이 가장 타당하고 설득적으로 지각되어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집단상호작용후에는 이 지점으로 반응이 수렴되면서 극화가 일어난다. 즉, 집단극화를 준거적 정보 영향에 의한 내집단규범에 의 동조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동조를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설득으로 인한 진정한 수용으로 개념화하며 집단극화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Hogg & Abrams, 1988; Turner et al., 1987). 집단극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내집단 규범은 내집단 내에서의 차이를 극소화하고 외집단과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지점으로 정의되며, 내집단 구성원들이 지닌 입장의 평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만일 내집단 평균과 규범이 일치하면 동조가 일어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극화가 일어난다. 일치여부는 내집단 평균이 주관적 준거틀(일반적으로 반응 척도)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내집단 평균이 주관적 준거틀의 중심(즉, 반응 척도의 중간점)에 위치하면 내집단 규범도 내집단 평균과 일치해서 동조현상이 생기며, 내집단 평균이 주관적 준거틀의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내집단 규범은 내집단 평균보다 동일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경향이 있어서 내집단 규범에의 동조는 곧 집단극화로 나타나게 된다(Wetherell, 1987).

요컨대 자기범주화이론은 설득주장이론과 마찬가지로 집단극화가 설득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설득주장이 내집단 동일시조건에서만 설득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집단극화를 사회적 규범에의 동조와 자기고양 경향간의 타협의 결과로 설명하는 사회비교이론과는 달리 내집단 규범에의 동일시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이론들이 집단고유의 역동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집단소속감이 극화에 결정적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이 집단 멤버쉽을 조작한 셈이나 그것의 가능한 영향력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이 이론은 최근에 대두되어서 지지증거가 그리 많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을 지지한다. Hogg 등(1990)은 피험자들에게 선택딜레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하도록 한 다음, 내집단보

다 더 모험적이거나 보수적인 외집단 또는 내집단과 비슷한 외집단의 토의를 녹음한 내용을 각각 들려주고 내집단 토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의견을 다시 물었다. 자기범주화이론의 예언대로 집단결정 추정치로 측정한 집단 규범은 모험적 외집단 조건에서는 집단평균보다 더 보수적이었으며, 보수적 외집단 조건에서는 더 모험적이었고, 유사 외집단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 개인적 반응들이 집단 규범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입증되었고, 집단규범의 극화 정도와 집단 동일시 정도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기범주화이론의 예측대로 내집단 규범, 주관적 증거 및 극화의 방향과 정도간의 관계(Abrams, Wetherell, Cochrane, Hogg & Turner, 1990; McGarty et al., in press; Reid, 1983; Turner, Wetherell & Hogg, 1989), 외집단과의 경쟁으로 인한 내집단 동일시 증가 및 이에 따른 극화(Mackie, 1986; Mackie & Cooper, 1984; Reid, 1983; Skinner & Stephenson, 1981) 및 내집단 규범에의 반응수렴현상(Abrams et al., 1990; Turner et al., 1989) 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Reid와 Sumiga (1984)의 연구에서는 외집단과의 경쟁조건에서 극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범주화이론은 기존 이론들을 비판하지만 기존 이론들로부터 반격을 받아 본 경험은 거의 없어서 이론들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결론적으로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더구나 Hogg와 McGarty(1990)의 지적처럼 집단맥락에서 어떤 범주가 특출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예언이 없는 등 다소의 보완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집단의 정의 및 형성에 관해서 기존의 입장(Cartwright & Zander, 1968; Shaw, 1981)은 개인들의 상호의존성을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하는데 비해서, 이 이론(Turner et al., 1987)은 개인들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한 사회적 범주화를 강조한다. 자기범주화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없는 단순한 범주화 조건에서 대체로 집단극화가 입증되었으나, Rabbie, Schot 및 Visser(1989)는 내-외집단으로의 범주화와 관계없이 성과가 상호의존적인 조건에서 집단극화를 발견함으로써 자기범주화이론을 반박하였다. 이 문제는 자기범주화이론의 존립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상호의존성과 범주화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결론 및 전망

집단극화현상은 주로 실험실에서 다루어졌으나 여러 현실적 집단현상에 관한 상당한 통찰력과 응용상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알콜 중독자들이나 비만증 환자들의 모임처럼 소집단 토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원 집단의 힘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극화에 관한 분석들은 집단이 지원적 영향을 지닐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준다. 즉, 사람들은 집단상호작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깊이 관여함으로써 유익한 지식을 얻게되고, 자신도 남에게 호의적으로 지각되려는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 자기개념을 유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김명연(1990)은 여러가지 조직현상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조직은 합리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성과 정당화가 적절하게 어울린 조직이라고 지적하고, 정신건강 유지 등의 이유로 적절한 정당화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집단극화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즉, 설득주의이론은 합리성 추구 경향, 사회비교이론은 인상관리를 통한 정당화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자기범주화이론은 내집단 구성원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어서 임상적 치료 집단과 같이 내집단 인식이 비교적 강한 집단에서는 집단내 상호작용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내집단내에서만 상호작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집단간 편견 및 차별, 집단과정을 통한 세뇌현상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의 방향대로 의견이 쏠리는 경향 등도 집단극화의 분석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각 이론에서 미해결된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자 나름대로의 몇 가지 가능한 연구방향과 과제를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들에 관한 전향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물론 자기범주화이론에 관한 충분한 검증 및 보완, 특히 기존 이론의 입장에서의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런 다음 각 이론들

의 상호관련성, 통합가능성 및 상대적 적합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범주화이론은 사회비교이론과 설득주장이론의 상당 부분을 통합하여 반영하는 등 설명의 절약성이 돋보이고, 다수의 기존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해서 현재로서는 두 이론을 통합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이론의 또 한가지 장점은 집단수준의 분석을 한다는 점인데, 집단특유의 역동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외적 타당성을 높힐 수 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Lewin이 추구했던 이론과 이론의 사회적 유용성간의 창조적 통합을 실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실제의 자연적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집단극화는 현실적 집단에서의 시사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경향은 실험실 연구만을 고집하는 사회심리학의 전통과 연구실행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서, 현상의 외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대부분의 집단극화 연구들은 1회 또는 단기 집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단발달의 초기단계에서의 현상을 다루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관계가 진전된 단계에 있는 집단도 연구하여 집단발달과정에 따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한덕웅, 1990)

끝으로, 집단극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고찰이다. 집단극화의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중립적일 수도 있다. 표면적 현상에만 주목하는 일반인이나 심지어 심리학자들도 대체로 집단의사결정은 개인의사결정보다 더 우수하다는 통념을 갖고 있다. 집단의사결정의 순기능을 과시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이와 정반대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한 Kennedy 대통령의 쿠바침공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을 비롯한 역사적인 대실수를 분석한 Janis(1972, 1982)의 집단사고(groupthink) 개념도 큰 주목을 받았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집단의사결정을 지칭하는 집단사고에서도 집단극화의 증거를 찾아볼 있는데(Forsyth, 1990), 순기능을 초래하는 조건과 역기능을 초래하는 조건을 규명한다면 연구의 균형을 도모하고 이론적으로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한덕웅, 1990), 실제 응용면에서

는 적어도 파국적인 결과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언(1990). 조직현상에서 나타나는 합리성과 정당화의 합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권 1호, 134-153.
- 성한기(1984). 사회비교와 설득주장이 선택이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 성한기(1987). 게임상황에서의 개인선택의 극화, 수선논집(성균관대학교), 12집, 357-371.
- 성한기(1989). 보수성향의 극화에 관한 종단적 접근: 대학경험의 효과. *학생지도 연구*(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8권 1호, 35-46.
- 한덕웅(1990). 소집단 행동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권 1호, 24-58.
- 한덕웅과 성한기(1985). 선택이행에 관한 2요인설의 검증. *행동과학연구*(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7권, 173-185.
- Abrams, D., Wetherell, M., Cochrane, S., Hogg, M.A., & Turner, J.C.(1990). Knowing what to think by knowing who you are: Self-categorization and the nature of norm formation, conformity and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97-119.
- Baron, R.S., Monson, T.C., & Baron, P.H.(1973). Conformity pressure as a determinant of risk-taking: Replication & ext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406-413.
- Baron, R.S., & Roper, G.(1976). Reaffirmation of social comparison views of choice shifts: Averaging and extremity effects in a autokinetic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521-530.
- Baron, R.S., Roper, G., & Baron, P.H.(1974). Group discussion, and stingy-sif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83-545.
- Bateson, N.(1966). Familiarization, group discussion, and risk-taking. *Journal of Experimental*

- social psychology, 2, 119–129.
- Berndt, T.J., McCartney, K., Capartulo, B.K., & Moore, A.M. (1983–1984). The effects of group discussions on children's moral decision. *Social Cognition*, 2, 343–359.
- Bishop, G.D., & Myers, D.G. (1974). Informational influence in group discuss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2, 92–104.
- Blascovich, J., & Ginsburg, G.P. (1978). Conceptual analysis of risk-taking in "risky-shift" research.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8, 217–230.
- Blascovich, J., Ginsburg, G.P., & Howe, R.C. (1975). Blackjack and the risky shift II: Monetary stak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224–232.
- Blascovich, J., Ginsbugy, G.P., & Howe, R.C. (1976). Blackhack: Choice shifts in the field. *Sociometry*, 39, 274–276.
- Blascovich, J., Ginsburg, G.P., & Veach, T.L. (1975). A pluralistic explanation of choice shifts on the risk dem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22–429.
- Bray, R.M., & Noble, A.M. (1978). Authoritarianism and decisions of mock juries: Evidence of jury bias and group pola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24–1430.
- Brown, Roger (1965). *Social Psychology*. New York: Free Press.
- Brown, Roger (1974). Further comment on the risky shift, *American Psychologist*, 29, 468–469.
- Brown, Roger (1986).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Free Press.
- Brown Rupert (1988). *Group processes*. New York: Basil Blackwell.
- Burnstein, E. (1982). Persuasion as argument processing. In H. Brandstaätter, J.H. Davis and G. Stocker-Koreichgauer (Eds.), *Group decision making*. London: Academic Press.
- Burnstein, E., & Vinokur A. (1973). Testing two classes of theories about group induced shifts in individual cho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123–137.
- Burnstein, E., & Vinokur A. (1975). What a person thinks upon learning he has chosen differently from others: Nice evidence for the persuasive-arguments explanation of choice shif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412–426.
- Burnstein, E., & Vinokur A. (1977). Persuasive argumentations and social comparison as determinants of attitude polar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315–332.
- Byrne, D. (1971). *The attraction paradigm*. New York: Academic Press.
- Cartwright, D. (1971). Risk taking by individual and groups: An assessment of research employing choice dilemm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361–378.
- Cartwright, D. (1973). Determinants of scientific progress: The case of risky shift. *American Psychologist*, 28, 222–231.
- Cartwright, D., & Zander, A. (1968). *Group dynamics* (3rd ed.). London: Tavistock.
- Clark, R.D. III. (1971). Group-induced shift toward risk: A critical appraisal. *PSychological Bulletin*, 76, 251–270.
- Clark, R.D. III, Crockett, W.H., & Archer, R.L. (1971). Risk-as-value hypothesis: Th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self, others and the risky shift. *Jof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425–429.
- Cotton, J.L., & Baron, R.S. (1980). Anonymity, persuasive arguments and choice shif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391–404.
- Crott, H.W., Zuber, J.A. & Schermer, T. (1986). Social decision scheme and choice shift: An analysis of group decisions among be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1–21.
- Cvetkovich, G., & Baumgardner, S.R. (1973). Atti-

- tude polarization: The relative influence of discussion group structure and reference group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159-165.
- Davis, J.H. & Hinsz, V.B. (1982). Current research problems in group performance and group dynamics. In H. Brandstätter, J.H. Davis & G. Stocker-Krechgauer (Eds.), *Group decision making*. New York: Academic Press.
- Davis, J.H., Kerr, N.L., Atkin, E.S., Holt, R., & Meek, D. (1975). The decision processes of six and twelve person mock juries assigned unanimous and two-thirds majority ru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4.
- Deutsch, M., Gerard, H.B. (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s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 Diener, E., Fraser, S.C., Beaman, A.L., & Kelem, R.T. (1976). Effects of deindividuation variables on stealing among Halloween trick-or-trea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78-183.
- Dion, K.L., Baron, R.S., & Miller, N. (1970). Why do groups make riskier decisions than individual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5. New York: Academic Press.
- Doise, W. (1969). Intergroup relations and polarization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136-143.
- Ebbesen, E.B., & Bowers, R.J. (1974). Proportion of risky to conservative arguments in a group discussion and choice shif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16-327.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eldman, K.A., & Newcomb, T.M. (1969).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 Felsenthal, D.S. (1979). Group vs. individual gambling behavior: Reexamination and limitation. *Behavioral Science*, 24, 334-345.
- Fisch, R., & Daniel, H.C. (1982). Research and publication trend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1-1980.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395-412.
- Fisher, B.A., & Ellis, D.G. (1990). *Small group decision making: Communication and group process* (3rd ed.). New York: McGraw-Hill.
- Forgas, J.P. (1977). Polarization and moderation of person perception judgment as a function of group interaction styl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 175-187.
- Forsyth, D.R. (1990). *Group dynamics* (2nd ed.).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 Fraser, C. (1971). Group risk-taking and group polariz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493-510.
- Fraser, C., & Foster, D. (1984). Social groups, nonsense groups and group polarization. In H. Tajfel (Ed.), *The social dimension*.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ethals, G.R., & Zanna, M.P. (1979).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choice shif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69-1476.
- Gologor, E. (1977). Group polarization in a non-risk-taking cul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8, 331-346.
- Gouge, C., & Fraser, C.A. (1972). A further demonstration of group polariz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95-97.
- Greenwald, A. (1975). Consequences of prejudice against the null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82, 1-20.
- Hastie, R., Penrod, S., & Pennington, N. (1983). *Inside the jury*. Cambridge, Mass.: Harvard

- University Press.
- Hinsz, V.B. & Davis, J.H.(1984). Persuasive argument theory, group polarization and choice shif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260–268.
- Hogg, M.A., & Abrams, D.(1988). *Social identifications: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London:Routledge.
- Hogg, M.A., & McGarty, C.(1990). Self-categorization & social identity. In D. Abrams & M.A. Hogg (Eds.), *Social identity theory:Constructive and critical advances*. New York:Harvester.
- Hogg, M.A., Turner, J.C., & Davidson, B.(1990). Polarized norms and social frames of reference:A test of the self-categorization theory of group polariz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 77–100.
- Hong, L.K.(1978). Risky shift and cautious shift:Some direct evidence on the culture-value theory. *Social Psychology*, 41, 342–346.
- Isenberg, D.J.(1986). Group polarization: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41–1151.
- Isozaki, M.(1984). The effect of discussion on polarization of judgment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26, 187–193.
- Izzett, R.R., & Leginski, W.(1974). Group discussion and the influence of defendant-characteristics in a simulated jury sett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3, 271–280
- Janis, I.L.(1972). *Victims of groupthink*. Boston: Houghton-Mifflin.
- Janis, I.L.(1982). *Victims of groupthink*. (2nd ed). Houghton:Houghton-Mifflin.
- Jellison, J.M., & Arkin, R.M.(1977). Social comparison of abilities:A self-presentational approach to decision-making in groups. In J.M. Suls and R.L.Miller(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N.Y.:Halsted Press.
- Jellison, J.M., & Riskind, J.(1970). A social comparison of abilities interpretation of risk-tak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375–390.
- Jellison, J.M., Riskind, J., & Broll, L.(1972). attribution of ability to others on skill and chance tasks as a function of level of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135–138.
- Jesuino, J.C.(1986). Influence of leadership process on group polariz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 413–423.
- Johnson, D.L., & Andrews, I.R(1971). The risky-shift hypothesis tested with consumer products as stimuli.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382–385.
- Johnson, N.R., Stemler, J.G., & Hunter, D.(1977). Crowd behavior as “risky shift”:A laboratory experiment, *Sociometry*, 40, 183–187.
- Kaplan, M.F.(1977). Discussion polarization effects in a modified jury decision paradigm:Informational influences. *Sociometry*, 40, 262– 271.
- Kaplan, M.F., & Miller, C.E.(1983). Group discussion and judgment. In P.B. Paulus(Ed.), *Basic group processes*, New York:Springer-Verlag.
- Kaplan, M.F., & Miller, C.E.(1987). Group decision making and normative vs. informational influence:Effects of type of issue and assigned decision ru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06–313.
- Kerr, N.L., & Watts, B.L.(1982). After division, before decision:Group faction size and predeliberation think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5, 198–205.
- Knox, R.E., & Safford, R.K.(1976). Group caution at the race trac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17–324.
- Lamm, H., & Myers, D.G.(1978). Group-induced polarization of attitude and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11, New York:Academic Press.

- Lamm, H., & Trommsdorff, G.(1974). Group influences on probability judgments concerning social and political change. *Psychological Reports*, 35, 987-996.
- Laughlin, P.R., & Earley, P.C.(1982). Social combination models, persuasive arguments theory,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choice shif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273-280.
- Levine, J.M., & Moreland, R.C.(1990). Progress in small group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585-634.
- McCauley, C.R.(1972). Extremity shifts, risky shifts and attitude shifts after group discuss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417-435.
- McCauley, C.R., Stitt, C.L., Woods, K., & Lipton, D.(1973). Group shift to caution at the race trac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80-86.
- Mackie, D.M.(1986). Social identification effect in group pola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20-728.
- Mackie, D.M., & Cooper, J.(1984). Attitude polarization:The effects of group member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75-586.
- McGarty, C., Turner, J.C., Hogg, M.A., Davidson, B., & Wetherell, M.S.(in press). Group polarization as conformity to the prototypical group membe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McGrath, J.E., & Kravitz, D.A.(1982). Group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95-230.
- McGuire, T.W., Kiessler, S., & Siegel, J.(1987). Group and computermediated discussion effects in risk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17-930.
- Madsen, D.B.(1978). Issue importance and group choice shifts:A persuasive arguments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18-1127.
- Marquis, D.G.(1962).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group decisions involving risk. *Industrial Management Review*, 3, 8-23.
- Mathes, E.W., & Kahn, A.(1975). Diffusion of responsibility and extrem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881-886.
- Mayer, M.E.(1985). Explaining choice shift:An effects coded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2, 92-101.
- Miller, N.(1978). A questionnaire in search of a theory. In Berkowitz(Ed.), *Group process*. New York:Academic Press.
- Morgan, C.P., & Aram, J.D.(1975). The preponderance of arguments in the risky shift phenomen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25-34.
- Moscovici, S.(1985). Social influence and conformit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New York:Random House.
- Moscovici, S., & Lecuyer, R.(1972). Studies in group decision I:Social space, patterns of communication and group consensu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221-244.
- Moscovici, S., & Zavalloni, M.(1969). The group as a polarizer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125-135.
- Muehleman, J.T., Bruker, C., & Ingram, C.M.(1976). The generosity shif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344-351.
- Myers, D.G.(1975). Discussion-induced attitude polarization. *Human Relations*, 28, 699-714.
- Myers, D.G.(1978). Polarizing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554-563.
- Myers, D.G.(1982). Polarizing effects of social in-

- teraction. In H. Brandstätter, J.H. Davis & G. Stocker-Kreichgauer(Eds.), *Group decision making*. London:Academic Press.
- Myers, D.G.(1988). *Social psychology*(2nd ed.). New York:McGraw-Hill.
- Myers, D.G., & Arensen S.J.(1972). Enhancement of dominant risk tendencies in group discussion. *Psychological Reports*, 30, 615–623.
- Myers, D.G. & Bach, P.J.(1974). Discussion effects on militarism-pacifism:A test of the group polarization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741–747.
- Myers, D.G. Bach, P.J., & Schreiber, F.B(1974). Normative and informational effects of group interaction. *Sociometry*, 37, 275–286.
- Myers, D.G., & Bishop, G.D.(1970). Discussion effects on racial attitudes. *Science*, 169, 778–789.
- Myers, D.G., Bruggink, J.B., Kersting, R.C., & Schlosser, B.(1980). Does learning others, opinions change one's opinions? *Personality and Soc Social Psychology Bulletin*, 6, 253–260.
- Myers, D.G., & Kaplan, M.F.(1976). Group-induced polarization in simulated jur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 63–66.
- Myers, D.G., & Lamm, H.(1976). The group polarization phenomenon. *Psychological Bulletin*, 83,, 602–627.
- Myers, D.G.m & Murdoch, P.(1971). Discussion arguments, information about other's responses and risky shift. *Psychonomic Science*, 24, 81–83.
- Myers, D.G., Wojcicki, S.A., & Aardema B. (1977). Attitude comparison:Is there ever a bandwagon effe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7, 341–347.
- Ono, K., & Davis, J.H.(1988). Individual judgment and group interaction:A variable perspective approach.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41, 211–232.
- Osborn, A.F.(1957). *Applied imagination*. New York:Scribner
- Paicheler, G.(1976). Norms and attitude change I:Polarization and styles of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405–427.
- Paichelor, G., & Bouchet, J.(1973). Attitude polarization and group polariz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83–90.
- Pruitt, D.G.(1971 a). Choice shifts in group discussion:An introductory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339–360.
- Pruitt, D.G.(1971 b). Conclusions:Toward and understanding of choice shifts in group discu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495–510.
- Pruitt, D.G., & Teger, A. I.(1969). The risky shift in group bett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115–126.
- Rabbie, J.M., Schot,m J.C., & Visser, L.(1989). Social identity theory:A conceptual and empirical critique from the perspective of a behavioural interaction mode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 171–202.
- Reid, F.J.M.(1983). Polarizing effects of inter-group comparis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105–106.
- Reid, F.J.M., & Sumiga, L.(1984). Attitudinal politics in intergroup behavior:Interpersonal vs. intergroup determinants of attitude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335–340.
- Reingen, P.H.(1974). Phenomena of shifts along a risk dimension tested with established group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4, 295–296.
- Riley, R.T., & Pettigrew, T.F.(1976). Dramatic event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004–1015.
- Rumsey, M.G., allgeier, E.R., & Castore, C.H.

- (1978). Group discussion, sentencing judgments and the leniency shif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5*, 249–257.
- Sanders, G.S.(1978). An intergration of shifts toward risk and caution in gambling situ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409–416.
- Sanders, G.S., & Baron, R.S.(1977). Is social comparison irrelevant for producing choice shif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303–314.
- Schroeder, H.E.(1973). The risky shift as a general choice shif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297–300.
- Semin, G.R., & Glendon, A.I.(1973). Polarization and the established group.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113–121.
- Shaw, M.E.(1981). *Group dynamics:The psychology of small group behavior*(3rd ed). New York: McGraw-Hill.
- Sheppard, B.H., & Davis, J.H.(1982). Introduction. In H. Brandstätter, J.H. Davis & G. Stocker-Kreichgauer(Eds.), *Group decision making*. New York: Academic Press.
- Singleton, R.Jr.(1979). Another look at the conformity explanation of group induced shifts in choice. *Human Relations, 32*, 37–56.
- Skinner, M., & Stephenson, G.M.(1981). The effects of intergroup comparison on the polarization of opinions. *Current Psychological Research, 1*, 49–61.
- Stasser, G., Kerr, N.L., & Davis, J.H.(1980). Influence processes in decision-making group: A modeling approach. In P.B.Paulus(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tasser, G., & Titus, W.(1985). Pooling of unshared information in group decision making: Biased information sampling during discu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467–1478.
- Stasser, G., & Titus, W.(1987). Effects of information load and percentage of shared information on the dissemination of unshared information during group discu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81–93.
- Stokes, J.P.(1971). Effects of familiarization and knowledge of other's odd choices on shifts to risk and ca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407–412.
- Stoner, J.A.F.(1961). Comparison of individual and group decisions involving ri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 Stoner, J.A.F.(1968). Risky and cautious shifts in group decision: The influence of widely held valu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 442–459.
- Tajfel, H.(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London: Academic Press.
- Teger, A.I., & Pruitt, D.G.(1967). Components of group risk tak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 189–205.
- Triplet, N.(1898). The dynamogenic factors in peacemaking and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9*, 507–533.
- Turner, J.C.(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J. Lawler(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 Vol.2*. Greenwich, C.T.: JAI Press.
- Turner, J.C.(1982).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In H. Tajfel(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C., Hogg, M.A., Oakes, P.J., Reicher, S.D., & Wetherell, M.(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 New York: Blackwell.
- Turner, J.C., & Oakes, P.J.(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B. Paulus

- (Ed.), *The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2nd. ed.),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Turner, J.C., Wetherell, M.S., & Hogg, M.A. (1989). A referent informational influence explanation of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135-148.
- Vidmar, N.(1974). Effects of group discussion on category with judg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187-195.
- Vinokur, A.(1971). A review and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group processes upon individual and group decisions involving risk. *Psychological Bulletin*, 76, 231-250.
- Vinokur, A., & Burnstein, E.(1974). The effects of partially shared persuasive arguments of group-induced shifts:A group problem solving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05-315.
- Vinokur, A., & Burnstein, E.(1978). Novel argumentation and attitude change:The case of polarization following group discuss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 335-348.
- Vinokur, A. Burnstein, E., Sechrest, L., & Wortman, P.M.(1985). Group decision making by experts:Field study of panels evaluating medical techn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70-84.
- Vinokur, A., Trope, Y., & Burnstein, E.(1975). A Decision-making analysis of persuasive argumentation and the choice shift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127-148.
- Walker, T.G., & Main, E.C.(1973). Choice-shifts in political decision making:Federal judges and civil liberties ca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 39-48.
- Wallach, M.A., & Kogan, N.(1959). Sex differences and judg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27, 55-564.
- Wallach, M.A., Kogan, N.,(1961). Aspects of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Interrelationships and changes with age. *Behavioral Science*, 6, 23-36.
- Wallach, M.A., Kogan, N., & Beam, D.J.(1962). Group influence on individual risk taking. *Journal of Abu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5, 75-86.
- Wallach, M.A., Kogan, N., & Bem, D.J.(1964). Diffusion of responsibility and level of risk-taking in group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263-274.
- Wetherell, M.S.(1987). Social identity and group polarization. In J. C. Turner, M.A.Hogg, P.J. Oakes, S.D.Reicher, & M.S.Wetherell(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New York:Blackwell.
- Whyte, W.H.(1956). *The organization man* New York:Simon and Schuster.
- Witte, E.H., & Lutz, D.H.(1982). Choice shift as cognitive change? In H. Brandstätter, J.H.Davis & G. Stocker-Kreichgauer(Eds.), *Group decision making*. New York:Academic Press.
- Wolosin, R.J., Sherman, S.J., & Mynatt, C.R. (1975). When self-interest and altruism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752-760.
- Yinon, Y., Jaffe, Y., & Feshbach, S.(1975). Risky aggression in individuals and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808-815.
- Zaleska, M.(1976). Majority influence on group choices among b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8-17.

원고 초 본 접수 : 1992. 2. 5

원고 수정본 접수 : 1992. 5. 12

A Comprehensive Review on Group Polarization: 1961-1990

Han-Gee Seong

Hyosung Women's University

Group polarization is the tendency for group interaction to produce group decision or mean of post-interaction individual decisions that is more extreme in the direction already favored than individual initial decisions. It was known as 'risky shift' by the findings that group was more willing to take risk than individual. But as its generality has proved across various tasks and situations, it has been reconceptualized and now becomes one of the more popular topics in group dynamics. In line with these trends, a number of explanations have faded in and out. Persuasive arguments theory emphasizing informational influence and social comparison theory focussing on normative influence enjoy substantial empirical supports, and more recent self-categorization theory attempts to integrate these two theories in terms of social identity processes. In reviewing studies on group polarization, historical trends and current status followed by generality of phenomenon and major theories are presented. Finally,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